

# 군산 쌀 명성 '십리향' 이어 받는다

### 신동진 벼 재배면적 15% 축소 십리향 대체 생산해 육성 집중 "안정 정착 위해 전폭 지원 계획"

군산지역 대표작인 고품질 쌀로 자리매김한 신동진벼가 구수한 향이 일품인 '십리향'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군산지역 쌀 재배면적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를 점진적으로 70%

까지 축소하고, 나머지 15%를 대체할 품종으로 십리향 등 고품질 쌀로 대체해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미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십리향"이 '호품'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도화향' 2호를 교잡한 신품종으로 쌀알이 맑고 구수한 향이 나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러운 맛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전북농업기술원과 손

잡고 재배 동향과 거점 도정시설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십리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은 전북도 육성 품종인 십리향 재배 동향과 거점 도정시설로 지정된 옥구농협 RPC를 방문해 현장 애로 사항과 농업현장 소통을 강화에 나섰다.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은 "군산지역 쌀의 명성을 이어갈 십리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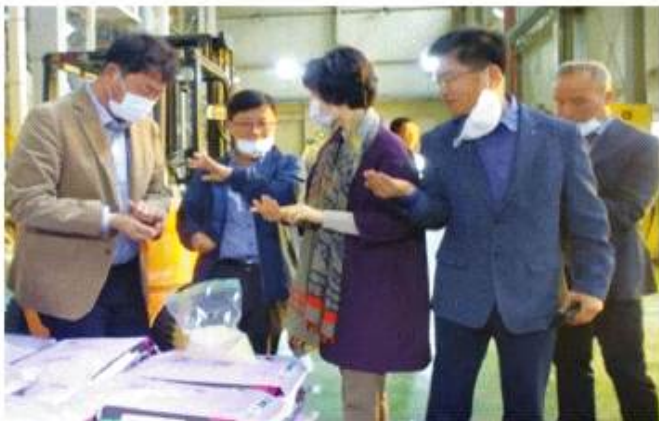
획"이라며 "십리향 쌀 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에서도 군산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군산지역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를 대체할 고품질 쌀 '십리향' 육성을 위해 전북도 농업기술원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옥구농협을 비롯해 회현농협, 대야농협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십리향'을 15ha에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에는 옥구읍과 옥서면, 대야지역에 128ha 규모로 재배했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전북연합신문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007면 지역

전북타임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007면 경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도 육성 품종인 십리향 재배동향과 거점도정시설로 지정된 옥구농협RPC를 방문해 현장애로 사항과 농업현장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방문했다.

## 전북농기원장, 십리향 재배현장 방문 '소통'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이 도 육성 품종인 십리향 재배동향과 거점 도정시설로 지정된 옥구농협 RPC를 방문해 현장애로 사항과 농업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지역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를 대체할 고품질 쌀 '십리향' 육성을 위해 도농업기술원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옥구·회현·대야농협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십리향' 15ha를 시험 재배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옥구, 옥서, 대야

지역에 128ha 규모로 재배했다.  
'십리향'은 '호품'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도화향 2호'를 교잡한 신품종으로 쌀알이 맑고 구수한 향이 나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은 "군산지역 쌀의 명성을 이어갈 십리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십리향쌀 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산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정현 기자·cldn27@daum.net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십리향' 육성 협력

### 전북농업기술 박경숙 원장, 재배현장 찾아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이 도 육성 품종인 십리향 재배동향과 거점 도정시설로 지정된 옥구농협 RPC를 방문해 현장애로 사항과 농업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지역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를 대체할 고품질 쌀 '십리향' 육성을 위해 도농업기술원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옥구·회현·대야농협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십리향' 15ha를 시험 재배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옥구, 옥서, 대야지역에 128ha 규모로 재배했다.  
'십리향'은 '호품'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도화향 2호'를 교잡한 신품종으로 쌀알이 맑고 구수한 향이 나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은 "군산지역 쌀의 명성을 이어갈 십리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십리향쌀 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산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군산지역의 쌀 재배면적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를 점차적으로 70%까지 축소하고 15%를 대체할 품종으로 십리향 등 고품질쌀로 대체해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